

# 1월의 기도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고전 13장 12~13절>

1. 2018년에도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님의 해외성회와 DCEM의 선교사역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우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2. DCEM총재 조용기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3. DCEM총재 조용기 목사님의 해외 성회 준비 가운데 DCEM과 모든 준비 기관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의 영을 부으사, 각자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4.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테러, 가난과 질병, 지진의 피해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사단의 세력이 떠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5. 이 땅에 동성애와 이슬람 문화가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아 주시고, 믿음의 성도들이 더욱 깨어 기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셔서 올바른 결정을 내려 하나님의 주권 하에 이 나라가 다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 아멘-

## 지난 한 달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순복음동경교회, 시가끼 시계마사목사님, 순복음신안산교회(최용우목사)에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정환, 김태승, 순복음정릉교회(조종숙 목사), 이태원, 정경자, Paul Rajendra 그리고 무명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후원을 위한 계좌안내 :  
계좌번호 181-22-02127-7 (KEB하나은행)  
예금주 : 디시이엠

### 조용기 목사 특별 메시지

## 행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

부부는 사랑하여 결혼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가장 용서하기도 어려운 관계입니다. 그만큼 사랑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신뢰가 무너지면 정말로 용서해주시가 힘이 듭니다.

프랑스 철학자 이폴리트 아돌프 텐(Hippolyte Adolphe Taine, 1828~1893)은 부부관계에 대해 “3주 동안 서로 관찰해 보고, 3개월 동안 서로 사랑하고, 3년 동안 서로 싸우고, 30년 동안 그 다음에는 있는 듯 없는 듯 참고 용서하면서 산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인생이 항상 좋기만 하지 않습니다. 가족이든 이웃이든 서로를 참고 용서하지 않으면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용서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기록합니다.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므로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야만 참다운 기쁨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받지 못할 우리를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그 사랑을 모두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변화 되기를 원하셔서 늘 기대를 가지고 사랑과 용서로 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행복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DCEM 뉴스레터 구독신청 안내

DCEM에서는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선교사역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 간행물 '뉴스레터(DCEM NewsLetter)'를 제작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DCEM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 또는 정기간행물을 무료로 받아보시기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DCEM에 연락주시면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TEL : (02) 6181-5064 / dcem@davidcho.com

# 되돌아보는 2017년 DCEM 해외성회



2017년 한 해도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님의 해외선교사역은 쉬지 않고 진행되었습니다.

2017년의 시작은 아시아의 태국이었다. DCEM(사무총장 시가끼 시계마사 목사, 순복음동경교회 담임목사)주관으로 진행된 '태국을 위한 축복과 기적의 성회'에서 2월 8일과 9일 이틀간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는 저녁 성회를 인도하며 성회에 참석한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적을 선물했다.

이는 1996년 조용기 목사를 강사로 태국 성회가 열린 지 약 20년 만이었다. 조용기 목사를 주강사로 열린 이번 성회에 태국 교회들은 교파를 초월해 교회성장과 새로운 부흥의 효시가 될 것을 기대하며 지난해부터 태국교회들은 기도로 준비해왔다. 뿐만 아니라 대만,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등 주변 아시아국가 목회자와 성도는 물론 레바논과 파키스탄 등에서도 참석해 성회 관계자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이어서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는 일본

의 공휴일(춘분의 날)인 3월 20일, 제자인 우창희 목사가 시무하는 순복음야마토교회(에비나시 소재)를 방문하고 말씀을 전했다. 이번 성회는 스승인 DCEM 총재 조용기 목사가 주창한 '일본 1천만 구령'의 사명을 위해 우창희 목사가 야마토 지역 복음화를 위해 헌신한 선교 20주년을 기념하는 축복 성회였다. 조용기 목사는 성회를 주최한 DCEM 사무총장 시가끼 시계마사 목사(순복음동경교회 담임목사)와 함께 순복음야마토교회에 도착해 성도들과 어린 화동의 환영을 받았다. 순복음야마토교회 우창희 목사는 "이번 성회가 순복음야마토교회에는 새로운 도전이 됐다. 지역 성회화를 통해 '일본 1천만 구령' 전진기지가 되겠다"고 밝혔다.

일본 야마토 지역에 뒤이어, DCEM이 주관하고 순복음일본총회와 순복음동경교회가 공동 주최한 '지저스 페스티벌 순복음동경교회 40주년 기념 성회'가 5월 28~30일 DCEM 총재 조용기 목사와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를 강사로 초청해 동경 신주쿠문화회관에서

개최됐다. 일본 일천만구령운동의 전초기지인 순복음동경교회 40주년을 감사의 제사로 올려드린 이번 성회에는 일본에서 사역하고 있는 순복음 선교사들이 대거 참석해 일본 선교의 열매를 확인할 수 있는 성령 대축제의 장이었다.

일본에 이어 조용기 목사는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엠파워드21 아시아총회를 겸한 싱가포르성회에 참석해 말씀을 전했다. DCEM 주관으로 싱가포르 엑스포 제2홀에서 열린 이번 성회에는 싱가포르를 비롯해 홍콩,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전역은 물론 미국과 아프리카 등지의 온 목회자들과 성도, 특히 청년들이 참석해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의 임재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니코 목사는 조용기 목사의 성회 참석과 그의 특별한 메시지에 감사하며 이번 성회를 계기로 아시아의 성령 운동하는 교회들이 더욱 부흥하고 발전해 세계복음화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에 이어짐)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1. 삶에 부는 바람과 파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삶에 부는 바람이 파도를 몰아옵니다. 우리 인생에 풍량이 이는 것은 바람이 불기 때문에 풍량이 일지, 바람이 불지 않으면 풍량이 일지 않습니다. 하지만 풍량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배개를 베고 함께 주무시는데도 풍량은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이 한 배에 탔는데 그 배가 풍량을 당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풍량이 안 다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왜 풍량이 그치지 않을까요?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귀가 아니고는 풍량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어 풍량이 이는 것처럼, 마귀가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삶에 끊임없이 문제의 파도가 몰아치는 것입니다. 문제의 파도가 몰아치면 인간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후의 세력인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풍량이 다가오면 풍량의 배후는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그 배후의 귀신이 꼭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풍량을 꾸짖어서 잠잠케 하셨는데, 꾸짖었다는 것은 풍량을 일으킨 배후 세력이 마귀라는 흉악한 귀신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악한 일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작가는 "마귀가 가장 조종하기 쉬운 존재는 마귀가 없다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배후에 마귀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마귀가 무한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배후에 있어서 자기를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놈의 마귀야 물러가라! 하나님, 마귀를 물리쳐주시옵소서."라고 저항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가족 간에 불화를 조장하고 가정을 파탄에 몰아넣고, 사업을 망하게 하기도 하고, 경제적인 파탄에 빠뜨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배후에 이렇게 조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가 배후의 세력임을 알고 마귀를 대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미줄을 치워도 거미를 잡지 않으면 거미줄은 항상 생기는 것입니다. 마귀 배후의 세력을 쫓아내지 아니하면 자꾸 파도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기에 처했을 때 예수님을 불러야 돼요. "예수님 이 풍량을 쫓아주세요." 빨리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86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아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대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매 순종하는가 하더라" (누가복음 8장 22~25절)

편 7절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2.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항상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어디다 두어서 그렇게 허둥지둥하느냐?" 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누가복음 8장 25절)'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은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배후의 세력인 마귀를 대적하고 풍량을 없애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풍랑 뒤에는 반드시 배후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 개인, 가정, 생활, 사회, 국가, 어느 곳이든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것입니다. 마귀는 불행의 배후 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배후세력이 되시면 성령으로 충만하고, 감동하고, 예배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은 생명의 영이라 우리가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배후세력이 되시면 기도하고, 찬양하고,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배후의 세력이 마귀가 되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풍랑을 만나도 침몰하지 않습니다. 100개의 교회를 개척한 대의그룹 회장 채의승 장로님은 그 인생에서 기막힌 풍랑을 겪은 분입니다. 모든 것을 투자해서 세운 공장이 호수로 순식간에 다 떠내려갔어요. 또 아픔을 딛고 일어나 전 재산을 정리해서 투자한 공장이 불이 나가지고서 또 다 타버렸습니다. 물도 통과하고 불도 통과하면서 빈 손 되었습니다.

그러나 삶 전체가 흔들리는 풍랑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같이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불을 통해서 다 놓친 것도 예수님이 곁에 계셔서 회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온갖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사야 43장 2절)

3. 이렇게 믿으라

인생에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났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 배후의 세력으로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면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다시 여러분은 일어설 수 있고, 복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영을 배울 때 온 몸에 힘을 바짝 주고서 물 속에서 버둥거리면 가라앉습니다. 그러나 사지에 힘을 빼고 물에 의지하면 물에 동동 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맡길 수가 없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주여!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니 그 다음은 주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에 빠졌을 때 내 힘으로 나오겠다고 허우적거리지 않는 것처럼,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발버둥 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시고, 우리를 안전한 항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파도가 일어나듯이, 우리의 인생도 바람이 불면 파도가 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조금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즉시 바람이 그치고, 어떠한 문제의 파도라도 잠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배후의 세력에 약한 마귀의 허리춤이 붙잡혀 있느냐? 우리가 단단히 살펴 봐야 될 것입니다. 바람 없는 풍량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개인생활도 마귀가 와서 훼방하지 않고는 시련의 풍랑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련을 갖고 우리에게 따라오는 마귀를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원수 마귀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쉬지 말고 귀신을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천금같이 여기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많이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와 주셔서 마귀를 쫓아내고, 성령의 생명의 역사를 일어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되돌아보는 2017년 DCEM 해외성회

(1면에 이어서)

2017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DCEM 총재 조용기 목사의 해외사역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DCEM 총재 조용기 목사와 이영훈 목사 초청 '블레싱 홍콩 2017 미라클 콘퍼런스' 축복 대성회가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아시아월드엑스포아레나(AWE)'에서 개최됐다. 홍콩기독교연합회가 주최하고 DCEM(사무총장 시가끼 시게마사 목사, 순복음동경교회 담임목사)이 주관한 이 성회는 '영적유산의 밤, 치료 해방의 밤, 성령 충만의 밤'을 주제로 홍콩 복음화는 물론 중국 대륙을 향한 선교를 목표로 열렸으며 성령 충만의 은혜와 치유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다.

성회 하루 전날인 8월 27일 홍콩은 태풍의 영향으로 비행기의 이착륙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예보가 있어 성회 관계자들을 긴장시켰다. 그러나 홍콩을 비롯한 대만, 마카오 등 아시아 중화권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은 그 어떤 태풍도 막을 수 없었다. 특히 조용기 목사와 이영훈 목사의 말씀을 듣고자 7000여 명의 목회자들이 사전등록을 하였으며, 연인원 5만 여 명이 성회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8월 29일 참석자들의 환호 속에 등단한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는 꿈과 비전을 통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블레싱 홍콩 2017 축복 대성회'는 아시아에 수많은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영적 축제였다. 또한 단순한 축제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함께 13억 중국의 복음화라는 꿈과 비전을 공유하고 기도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

8월의 열기가 식기도 전에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는 9월 20일 순복음오야마교회(담임 강은택 목사)에서 '은혜와 기쁨의 성회'를 인도했다.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는 이날 성도들에게 요한복음 3장 14절을 본문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했다. '일본 일천만 구령'의 역사를 위해 순복음오야마교회 성도들이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순복음오야마교회 축복 성회는 DCEM (David Cho Evangelistic Mission) 주관으로 열렸으며, 순복음일본총회장 시가끼 시게마사 목사(순복음동경교회 담임목사)가 참석해 조용기 목사의 설교를 일본어로 통역했다. 그리고 순복음동경교회 성도들도 참석



해 지역 복음화를 위해 함께 기도하였다. 제자인 순복음강남교회 최명우 목사와 무용단도 함께하여 아름다운 찬양 울동을 선보였다.

2017년 한 해 동안 DCEM의 해외 성회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세계 복음화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그날까지 DCEM의 해외선교 사역은 끊임없이 전진해 나아갈 것이다.

A Christmas-themed graphic with a red ribbon, snowflakes, and the text 'Merry Christmas'. It contains a message: '기쁜 성탄을 맞이하여 2017년 한 해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것에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복된 성탄과 풍성한 새해를 맞이하시길 기도드리며 주 안에서 승리의 기쁨이 항상 넘쳐나시길 기도합니다.' Below the message are the names of the General Secretary (조용기 목사, 趙錫基) and the Executive Director (시가끼 시게마사 목사, S. SUGIMASA).